



스위스 탐구 생활: 체르마트(Zermatt) 놀이터.

체르마트 완전 정복

누구나 여행하는 방식 말고

체르마트를 놀이터로 사용하는 방법

겨울과 겨울이 아닌 때

스키 타고 스파하고, 하이킹하고 자전거 타고

맛있고 안전한 놀이도 충분히 매력적

체르마트 오고 갈 때는 잊지 말라, 빙하특급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시간을 내어, 곧 떠날 날을 준비하는 의미로 스위스정부관광청은 한국 여행자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스위스 여행지의 숨은 묘미를 하나씩 공개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여행자들이 더 다채롭고 깊이 있게 곧 다시 스위스를 여행하기를 기대하며, 그 여덟 번째로 체르마트를 소개한다.

1. 체르마트는 어떤 곳인가?

놀이 전에, 체르마트의 캐릭터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체르마트는 스위스 서남부에 위치한 30km 길이의 계곡 끝자락에 위치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조트 마을로, 해발고도 1,620m 에 위치하여 4,000m 급 알프스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싼 알프스 마을이다. 휘발유 자동차 진입이 금지되어 있고, 전기 자동차와 버스가 마을의 교통편이 되어 주고 있는 곳이다. 척박한 산골 마을이었던 체르마트에 처음 방문자가 나타난 것은 1758 년으로, 식물학자와 과학자들이었다. 1838 년 처음으로 여관이 문을 열고, 알프스 등반가들을 맞이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영국인, 에드워드 뎀퍼(Edward Whymper)가 이끄는 7 명의 산악인이 처음으로 마테호른(Matterhorn)을 정복하며 체르마트는 1865 년 세상에 유명세를 떨치게 되었다.

지금은 체르마트가 세계적으로 '친환경 리조트'로 주목을 받고 있다.

1. 친환경 마을의 주인공, 전기차

체르마트는 자동차 진입이 허락되지 않는다. 차가 처음 발명된 1885 년 이래 허락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당시에는 마차가 이용되던 시기였지만, 자동차가 흔해진 이후에도 체르마트 주민들은 1961 년, 1972 년, 1986 년 세 번의 주민 투표를 위해 응급차를 제외한 내부 연소 차량과 트럭의 마을 진입을 금지했다. 1988 년 최초의 마을 내 공공 버스가 운영을 시작했다. 물론, 전기 버스였다. 현재 체르마트에는 약 500 대의 전기 버스가 등록되어 있다. 전기 버스를 생산하는 비용은 만만치 않다. 한 대당 CHF 65,000 에서 최대 CHF 120,000 까지 소요된다고 하니 약 7300 만 원에서 1 억 3 천만여 원의 비용이다. 그런데도 마을 사람들이 고집을 꺾지 않는 이유는 바로 관광으로 인해 자연 훼손과 공기 훼손 때문이다.

지금도 차로 체르마트에 가려면 마을에서 5km 떨어진 마을, 태쉬(Täsch)에 주차를 하고, 20 분마다 운행되고 12 분이 소요되는 셔틀 기차를 이용해야 한다. 호텔에서는 투숙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전기 자동차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기차역부터 호텔까지 짐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편 버스나 제설 차량도 모두 전기 자동차다. 겨울 시즌에는 체르마트 마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호텔과 케이블카 역을 연결해 주는 스키 버스가 운영되는데, 물론 이 버스도 전기 차량이다. 마을 곳곳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버스와 택시도 운행되는데, 소음 없는 전기 버스에 올라타 체르마트의 마을 곳곳을 조용히 누벼볼 수도 있다.



2. 친환경 곤돌라

친환경 곤돌라를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환경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평균적으로 1년에 하나꼴의 케이블카 경로 재설치가 필요한데, 생태학적 가치 판단을 기초로 새로운 루트를 설계하고 있다. 체르마트 케이블카(Zermatt Bergbahnen AG)는 관광 초기부터 진행되어 온 환경 파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선구자적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친환경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경 보전이 가능한 교통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03년부터 환경 보존 지역을 구역화하여 주요 관광지에서 분리하고 있으며, 야생 동식물 보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 이제, 마음 놓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본격적으로 놀아보자! 겨울이라면,

1. 체르마트라면 단연, 스키. 스키 삼합 체험

파우더 스노우를 뿌리고 산 정상부터 짜릿한 스키를 즐기면서 내려오다가 어딘가에서 멈추어 무거운 스키와 부츠를 끌고 호텔을 찾아가야 하는 것은 스위스답지 못하다. '정녕 스위스다운 스키'란 알프스 정상에서부터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가 산장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한 잔 곁들여 따뜻한 식사를 즐기고 다시 스키를 타고 산 밑으로 내려와 확, 커브를 돌아 묵고 있는 호텔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다. 스키를 신은 채로 말이다. 알프스 정상부터 호텔 문 앞까지가 모두 스키장인 곳, 그곳이 바로 스위스다. 이렇게 정녕 스위스다운 스키를 즐길 수 있는 호텔을 "스키인 스키 아웃(Ski-in Ski-out) 호텔"이라 부른다. 여기에 스파까지 더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겨울 휴가가 되어 준다. 스키로 경직되거나 피곤해진 몸을 따뜻한 스파에 담그고 있다면, 게다가 주변으로 펼쳐진 눈꽃 풍경을 감상하고 있다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진다. 이렇게 스키로 호텔 접근성이 좋을수록, 그리고 스키 후 뒤편이를 뜻하는 아프레 스키(Après ski) 문화가 세련될수록 고급 스키 리조트로 꼽힌다. 스키, 스파, 아프레 스키 세 가지가 조합될 때 최고의 평가를 받는 것이 바로, 스키 리조트다. 그런 면에서 체르마트는 세계 최고의 리조트로 꼽힐만한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다.

4,000m 이상의 봉우리 47 개가 에워싸고 있는 스키장

파라다이스의 로고이자, 2015년 최초 등정 150주년을 맞이한 마테호른이 있는 체르마트는 스위스인들은 물론 전 세계의 스키어와 보더들에게 최고의 정통 알파인 스키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꼽힌다. 특히, 휘발유 차량의 마을 진입을 통제하고, 전기 자동차만 운영하며, 각종 친환경 수상으로 화려한 케이블카를 운행하는 등, 청정 알프스 마을로 유명해 설질에 대한 기대와 만족도 역시 무척이나 높은 곳이다. 17km에 달하는 스위스에서 가장 긴 슬로프가 있고, 반복 구간 없이 12,000미터까지 수직 하강할 수 있는 코스도 마련되어 있다. 무엇보다 마테호른을 바로 눈앞에 두고 주변으로 4,000m급 알프스 봉우리 47개가 펼쳐진 장관 속에서 스키를 탄다는 데서 그 짜릿함을 찾아볼 수 있다. 마테호른 글래시어 파라다이스(Matterhorn Glacier Paradise)행 케이블카를 타고 찾아갈 수 있는 스노우파크에서는 프로페셔널을 위한 세 개의 레일과 세 개의 점프대, 초급자를 위한 12개의 점프대와 12개의 박스, 프로들을 위한 8개의 레일을 갖춘 레일 가든이 마련되어 있어 전 세계 프리스타일 스키어들이 몰려들고 있다. 조금 더 특별한 체험을 원한다면 VIP 곤돌라에 올라보자. 체르마트에서 트로케너 슈테그(Trockener Steg)까지 운행하는 4인용 특별 곤돌라에 탑승해 샴페인을 마시며 기막힌 파노라마를 감상할 수 있다.

체르보 마운틴 부티크 리조트(Cervo Mountain Boutique Resort)



알프스 한가운데에 자리한 로맨틱한 5성급 호텔로 러스틱한 헌팅 룩지와 트렌디한 알파인 룩지 디자인이 잘 블렌딩 되어 있는 감각적인 리조트다. 스위스 커플들에게 인기가 많고, 웨딩 장소로도 자주 선택되는 곳이다. 프라이빗한 스파 시설과 노천 월풀, 크나이프와 각종 마사지를 마테호른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 샬레 내부에는 낭만적인 벽난로가 설치되어 있다. 메인 샬레에는 스타일리쉬한 바와 라운지, 디자인 감각이 물씬 풍기는 스위스 전통 레스토랑과 햇살 가득한 테라스가 마련되어 있다. 알프스식 타파스와 홈메이드 스타일의 요리들, 체르보 플래터 등 맛깔난 미식 체험도 즐길 수 있다. 호텔을 나서면 스키장이 펼쳐진다. 헬리 스키 예약도 대행해 주고 있어 모험 가득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수벡가(Sunnegga)에서 호텔로 바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가 운행되어, 체르마트 마을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로컬들이 손에 꼽는 아프레 스키 장소기도 하다.

www.cervo.ch

2. 헬리스키(Heliski)

스키 정도로 성에 차지 않는다면, 좀 더 하드코어한 액티비티가 있다. 바로, 헬리스키다. 헬리콥터를 타고 알프스 상공을 날다 원하는 지점에 내려 오프 트레일 스키나 보드를 즐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케이블카를 타고 스키장 꼭대기에 올라가 잘 닦여진 슬로프를 따라 내려오는 방법으로 스키나 보드를 타게 되는데, 헬리스키를 이용하면 상공을 나는 동안 알프스의 비경을 보다 가깝게, 그리고 보다 멀게 관망하다가 노련한 헬리콥터 파일럿이 추천하는 지점에 착륙해 오프 트레일 스키를 즐기며 산을 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알프스의 가장 비밀스런 스팟에서 스키를 시작해 아무도 밟지 않은 파우더 스노우를 흩뿌리며 산을 내려올 수 있어 스키어들의 로망으로 꼽힌다. 체르마트에서는 마테호른을 비롯한 4,000미터급 알프스 봉우리들의 비경을 감상하며 헬리스키를 즐길 수 있다. 몬테 로자(Monte Rosa: 4,200m) 산을 따라 푸리(Furi: 1,800m)까지 3-4 시간이 소요되는 헬리스키 코스를 CHF 400 가량에 이용할 수 있다.

3. 썰매, 터보강(Toboggan)

고르너그라트산에서 '터보강'이라 불리는 알프스 최고의 썰매를 타볼 수 있다. 마테호른을 배경으로 로텐보덴(Rotenboden: 2'815 m)에서 시작해 10 분 동안 1.5km 나 썰매를 지치고 내려오면 리펠베르그(Riffelberg: 2'582 m)에 도착하게 된다. 10 분마다 운행되는 기차를 타고 다시 올라가 바로 썰매를 이어 탈 수 있다. 스위스 연인들에게도 인기인데, 4 월 말까지 썰매를 탈 수 있다. 스위스 프렌즈였던 노홍철씨도 신나게 탔던 체르마트 겨울 명물이다.

4. 스노우슈(Snowshoe) 신고 겨울 하이킹

눈에 발이 빠지지 않도록 고안된 신발을 신고, 눈밭을 걷는 겨울 액티비티인 스노우슈를 체험해 보아도 좋다.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는 코스가 있는데, 고르너그라트 정상에서 출발해 로텐보덴까지 이어지는 내리막 코스다. 반짝이는 눈꽃, 따스한 햇살, 웅장한 마테호른의 파노라마가 대단한 겨울 하이킹 체험을 선사해 준다. 한 시간 30 분 정도 소요되는 코스고, 총 거리는 1.7km 다. 오르막은 36m, 내리막은 302m 다. 기차길 왼편을 따라 내리 이어지기 때문에, 쉬운 코스다.

5. 겨울 패러글라이딩

스키나 썰매보다 좀 더 특별한 체험을 원한다면 패러글라이딩에 도전해 보아도 좋다. 마테호른이 우뚝 솟아 있는 알프스를 새처럼 날며 겨울 파노라마 한복판으로 입장해 보자. 체르마트에서는 겨울에도 패러글라이딩이 가능하다. 전문 가이드와 함께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안전하게 안내를 해 준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눈밭 사이로 지나다니는 야생동물을 볼 수 있는 행운도 만날 수 있다. 로트호른(Rothorn)이나 바람 상황에 따라 마테호른 글래시어 파라다이스에서 출발할 수도 있다.



6. 마테호른 배경으로 체험해 보는 컬링

체르마트에서는 웅장한 명봉, 마테호른을 배경으로 컬링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중세 스코틀랜드의 얼어붙은 호수나 강에서 무거운 돌덩이를 빙판 위에 미끄러뜨리며 즐기던 놀이에서 유래한 컬링은 지난 평창 동계 올림픽 때, 강호 스위스를 이기며 국민적인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체르마트에는 여섯 개의 야외 아이스 링크가 있는데, 스코틀랜드 방식 및 바바리아 방식의 컬링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체르마트 컬링 클럽은 스위스에서도 가장 유명한 컬링 경기장 중 하나로, 전 세계의 컬링 대표 선수들이 체르마트의 빙판 위에서 훈련을 한다. 다섯 명 이상만 모이면, 컬링 체험을 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컬링 가이드가 기초적인 컬링 테크닉을 가르쳐 주는데, 짧은 시간 동안 쉽게 배워볼 수 있다. 2 시간 동안 컬링을 배우고 실제 경기에도 도전해 볼 수 있다. 여기에 따뜻한 글뤼바인과 스낵, 치즈 фонд뤼에 와인 한 잔까지 곁들여 근사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7. 새해라면, 일출. 새해 아니더라도 일출.

새해의 해는 왠지 더 특별하다. 새해의 일출과 함께 아무도 밟지 않은 슬로프를 먼저 독차지해 보거나, 일출을 감상하며 커피 한 잔을, 석양을 감상하며 와인 한 잔을 마셔보는 체험은 스위스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추억하게 만들어 준다. 이른 새벽, 그리고 어둠이 내린 뒤 특별한 액티비티가 여행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체르마트 자연의 품에서, 새해의 빛을 받으며 특별한 체험을 즐겨볼 수 있다.

체르마트의 퍼스트 트랙(First Track) 패키지는 스키어와 보더들이 꿈꿀만한 것이다. 일출을 보며 밤새 말끔하게 준비를 마친 슬로프를 제일 먼저 독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케이블카 공식 운행 시간에 앞서 트로케너 슈테그 행 케이블카를 탄다. 트로케너 슈테그에 도착하면 기다림은 끝이다. 퍼스트 관리 및 구조 서비스 팀이 환영 인사와 함께 첫 하강을 위한 안내를 해준다.

황금빛으로 물든 알프스 봉우리가 눈 앞에 펼쳐진다. 알프스에서의 일출을 보는 것보다 더 멋진 일이 살면서 얼마나 있을까? 발레(Valais) 주의 알프스를 배경으로 스릴 넘치는 턴을 즐기고, 스키 아래로 부서지는 눈 소리에 귀 기울여볼 수 있다. 노련한 가이드가 함께해 더욱 안전하다. 다운힐을 즐긴 뒤에는 마테호른 클래식 파라다이스 레스토랑에서의 풍성한 조식을 맛볼 수 있다. 조식 후에는 온종일 마음껏 스키를 타면 된다.

8. 달빛 어드벤처

어둠이 내리면 사람들 대부분은 식전주를 즐기거나 저녁 식사를 기다린다. 하지만 야간 스키어라면 한 차례 더 슬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재미를 놓칠 수 없다. 눈꽃이 달빛에 비춰 디스코 볼처럼 반짝인다. 낮보다 밤에 산의 윤곽이 더 선명해진다. 로트호른은 스키 퍼스트 위로 웅장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마지막 황혼을 반사해 낸다. 로트호른부터 시작되는 이 구간은 보름달 아래 독특한 스키 어드벤처를 즐길 수 있게 만들어진다. 먼저 로트호른 레스토랑에서 전통 치즈 фонд뤼로 에너지 레벨을 업 시킨 뒤, 밤 10시 30분 새로 정비한 슬로프에서 달빛 활강을 즐긴다. 체르마트 퍼스트 서비스 및 구조대가 안전을 위해 하강 내내 가까이 대기한다.

스키를 타지 않고 보름밤을 즐기는 방법은 고르너그라트(Gornergrat)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2, 3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고르너그라트 정상에서 글뤼바인이나 티로 몸을 따뜻하게 데운 뒤, 가이드를 동반한 스키로 라펠알프(Riffelalp)까지 이동한다. 리펠알프에 있는 레스토랑 알피타(Alphitta) 레스토랑에서 따뜻한 수프와 뢰슈티를 맛볼 수 있다. 식사 후에는 체르마트 근처의 란트툰넬(Landtunnel)까지 가이드 스키를 타고 간다. 만약, 스키를 타지 않을 경우에는 이 모든 구간을 기차로 이동할 수 있다.



9. 낭만 쏟아지는 이글루 호텔

이글루 호텔에서의 하룻밤은 버킷 리스트에 올려도 좋을 만한 아이템이다. 이글루 레스토랑에서 전통 치즈 풍류를 즐긴 뒤, 뜨거운 물병으로 따뜻하게 데운 침대 속에 몸을 묻으면 얼음 한가운데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온기가 느껴진다. 체르마트에 있는 고르너그라트 산 중턱, 로텐보덴(Rotenboden)에는 아담한 이글루 마을(Igloo Village)이 있다. 얼어붙은 산정호수와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설경이 사방으로 펼쳐진다. 스키 인파가 산을 내려간 뒤에는 산속에 고요와 정적이 찾아들고, 이와 함께 로맨틱한 산속의 겨울밤이 시작된다. 이글루 빌리지의 분위기는 저녁 무렵 특별히 로맨틱하다. 산속에 찾아든 노을빛이 방과 복도를 따뜻하게 감싼다.

www.iglu-dorf.com

3. 겨울이 아니라면,

1. 다섯 개 호수 트레일(5 Seenweg) 하이킹

블라우헤르드(Blauherd)부터 수벱가(Sunnega)까지 이어지는 다섯 개 호수 트레일은 체르마트의 숲 내음 가득한 산속을 거니는 웅장한 하이킹 트레일이다. 세 개의 호수에서는 마테호른이 수면 위로 반사되는 진기한 가을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이 특색있는 봉우리의 풍경은 누가 뭐래도 독특하다. 하이킹 트레일은 슈텔리제(Stellisee), 그린드이제(Grindjisee), 그룬제(Grünsee), 모오스이제(Moosjisee), 라이제(Leisee) 호수를 연결한다. 총 거리는 9.8km, 소요 시간은 3 시간 정도다. 오르막은 165m, 내리막은 454m 로 큰 어려움 없이 도전해볼 만한 코스다.

2. 자전거로 체르마트(Zermatt)의 마운틴 엔듀로 코스

고르너그라트부터 체르마트까지 이어지는 엔듀로 코스는 전설적인 다운힐 코스로, 고르너그라트 정상부터 체르마트 마을까지 이어지는 코스는 바이커의 심장을 설레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 다채로운 트레일과 마테호른이 우뚝 솟은 절경을 따라 기막힌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 고르너그라트 정상 전망대에서는 마테호른을 포함한 체르마트 주변의 알프스 파노라마가 사방으로 펼쳐진다. 이곳이 마테호른을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하다. 트레일은 고르너그라트에서 시작해 내리막길로 이어지는데, 자갈 슬로프와 작은 산길, 알프스 초원, 마을과 산상 호수 등 다채로운 길의 풍경이 이어진다. 루트 상의 모든 산정호수는 그 특징이 제각각인데, 그룬제는 여름이면 수영을 즐기는 사람들로 붐빈다. 루트는 싱글 트레일로 이어진 뒤, 널찍한 시골길이 나타난다. 리드(Ried)부터는 마테호른의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총 거리는 20km 이고, 고도차는 오르막이 206m, 내리막이 1,693m 다.

4. 양전히 놀고프다면,

1. 마테호른 글래시어 파라다이스

마테호른 글래시어 파라다이스는 유럽 최고(最高)의 전망대로, 체르마트에서 곤돌라와 케이블카로 약 30 분 소요된다. 해발 3,883m 의 마테호른 글래시어 파라다이스에는 전망대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와 빙하 15m 아래까지 이어지는 얼음 동굴, 얼음 궁전(Glacier palace)이 있다. 반짝이는 얼음 크리스털과 얼음 조각이 얼음 궁전을 찾는 이들을 반겨준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빙하 표면 15m 아래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신비한 빙하 아래에 펼쳐지는 동화 속 장면을 마주할 수 있다. 얼음 터널이 빙하를 통해 이어지며 빙하 크레바스와 얼음 터보건 등과 같은 진풍경을 보여준다. 따뜻한 털 방석으로 덮어



높은 얼음 벤치도 있다. 얼음 조각은 수시로 새로운 작업을 선보이는데, 아름답고 신비한 풍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2. 고르너그라트

체르마트가 선사하는 알프스의 웅장한 파노라마를 제대로 체험하는데, 고르너그라트만한 곳은 없다. 4,000m 급 봉우리 29 개가 병풍처럼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봉우리, 고르너그라트 정상에서는 스위스에서 가장 높은 산인 두포우르슈피체(Dufourspitze: 4,634m)와 알프스에서 세 번째로 긴 빙하인 고르너(Gorner) 빙하가 있는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이 풍경으로 안내하는 것이 바로, 고르너그라트반 기차로, 1898 년부터 운행되는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된 전기 톱니바퀴 열차이다. 톱니바퀴 열차로 체르마트부터 고르너그라트 정상까지 24 분마다 기차가 운행된다. 짜릿한 고가를 지나고 터널과 깊은 숲속, 계곡과 산정 호수를 지나는 여정 자체도 무척 아름답다. 해발고도 3,089m 의 고르너그라트 정상에서는 야외 전망대가 연중 운영된다.

체르마트가 품은 알프스를 체험하는데 3100 쿨름호텔 고르너그라트에서 숙박을 해 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 스위스 알프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호텔로, 고르너그라트 봉우리 정상에 있다. 1896 년 체르마트 마을에서 해발 3,100m 위에 자체적으로 지은 첫 번째 호텔로, 고르너그라트의 기막힌 파노라마를 석양과 일출과 함께, 그리고 쏟아지는 별빛과 함께 즐길 수 있다. 방 이름이 고르너그라트를 에워싸고 있는 29 개의 봉우리 중 하나라는 점이 재미있다. 알프스 소나무와 천연 재료들을 이용해 만든 가구와 인테리어가 돋보인다. 창 너머로 보이는 마테호른 봉우리의 뷰는 평생 잊지 못할만한 것이다. 특히 호텔의 탑에는 천문대가 있어 더욱 특별하다. 1996 년에 만들어진 돔 형태의 지붕으로, 고르너그라트 정상의 맑은 공기와 적절한 밝기로 인해 최상의 갤럭시를 관측할 수 있다. 현재는 남측 천문대만 사용 중인데, 쾰른 대학에서 관측을 하고 있다.

호텔에서 숙박을 하지 않더라도, 셀프서비스 식당과 파노라마 미식 식당이 있어, 알프스 정상에서 미식 체험을 즐기기에 좋다.

3. 마테호른 박물관(Matterhorn Museum).

2015 년은 스위스 알프스 마을, 체르마트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지 150 년이 되는 해였다. 지금은 토블러론 초콜릿이나 파라마운트사 로고를 통해 사람들에게 더욱 친숙해진 마테호른(4,478m) 봉우리가 체르마트에 있는데, 1865 년 7 월 14 일, 영국 등반가 에드워드 워퍼와 그의 등반팀이 마테호른을 세계 최초로 정복하면서 체르마트는 관광지로 거듭났다. 여전히 알프스 등반가들에게는 베이스 캠프가 되어 주고 있는 체르마트 마을에는 워퍼의 마테호른 정복이 상징하는 '알피니즘(Alpinism)'에 기초한 특별한 박물관이 있다. 바로 2006 년에 개관한 마테호른 박물관이다. 1792 년 클라인 마테호른(Klein Matterhorn)을 처음 정복한 과학자 소쉬르(H.B. de Saussure)에 대한 자료부터 각종 사고의 기록들과 마테호른 등정에 관련된 소중한 기록들을 모아 둔 고귀한 정서가 깃들여 있는 컬렉션을 보여 준다. 특히 워퍼의 등반팀이 이룬 소중한 승리와 동시에 마테호른 최초 정복을 둘러싼 비극에 대해서도 가슴이 저릿할 정도로 감동 있는 스토리 텔링을 하고 있어 인상적이다. 1865 년 워퍼 등반팀이 사용했던 끊어진 로프도 전시되어 있는데 마음을 울리는 아이টে็ม으로 많은 이들의 발길을 잡고 있다. 체르마트 근처의 테오둘 고개(Theodul Pass)를 지나다 운명을 달리한 16 세의 용병의 이야기와 19 세기 체르마트 사람들의 생활상도 엿볼 수 있다. 귀중한 역사와 정신을 고귀한 방법으로 보존하고 지켜나갈 줄 아는 스위스인들의 진실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 소지 시 입장료가 무료다. 체르마트 마을 중간에 있는 성당이 있는 키르흐플라츠(Kirchplatz) 광장에 있다.

4. 야외 풀장에서 여유로운 한때

워낙은 허니문너들에게 인기 있는 아이템이다. 허니문 중에 모든 피로를 잊고, 호화로운 순간에 몰입하며, 쉬어갈 수 있는 곳이지만, 그 누구라도 찾아볼 만한 야외 풀장이 있다. 그림 같은 풍경 속에 자리한 호텔과 스파 센터에서는 야외에 풀장을 마련해 놓고, 투숙객들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사해 주고 있다. 로컬 연인들에게도 인기 있는 데이트 스팟들로, 어쩌다 한 번 허락해 볼 만한 호사스러운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리펠하우스(Riffelhaus) 1853****는 해발고도 2,500m 에 자리한 역사적인 산장 호텔로, 스키장과 바로 접해 있으며, 여름이면 하이킹 트레일이 뿔어나간 알프스 들판으로 둘러싸여 있다. 체르마트에서 이곳을 찾을 경우 고르너그라트행 기차로 23 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투숙하지 않더라도, 신선한 공기 속에서 스포티한 하루를 보내고 사우나를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 마테호른의 놀라운 뷰가 한눈에 들어오는 야외 월풀이 갖춰져 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는 산에서 채취한 허브로 정성껏 요리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호텔 리펠알프 리조트(Hotel Riffelalp Resort) 2,222m 는 태고의 자연, 평온, 따스함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야외 풀에서 보는 마테호른의 뷰가 굉장하다. 세 개의 레스토랑에서는 즐거운 미식 체험도 즐길 수 있다. 문밖으로는 스키장과 하이킹 천국이 펼쳐진다.

5. 그저 맛있게 놓고프다면,

1. 쉐 브로니(Chez Vrony)

쉐 브로니(Chez Vrony)는 체르마트에 펼쳐진 알프스 중턱, 핀델른(Findeln)에 있는 작은 농장 건물을 개조하여 만든 레스토랑이다. 100년이 넘는 역사가 고스란히 묻어나 있다. 직접 기른 유기농 식재료와 알프스 산 중턱에서 신선한 풀을 먹고 자라는 쉐 브로니 소유의 소에게서 받아낸 우유로 만드는 유제품을 이용하여, 체르마트의 향내가 물씬 풍기는 소박하지만 맛깔난 음식을 만들어내고 있다. 쉐 브로니에서 맛볼 수 있는 발레주의 전통 음식인 말린 고기류와 홈메이드 소시지, 산악 치즈 등은 오랜 시간 동안 대대로 전수 받아온 레시피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체르마트의 전통적인 목재 인테리어가 마치 하이디의 집에 와 있는 듯한 기분에 젖게 한다. 미슐랭 밥 구르망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 미슐랭 가이드는 쉐브로니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미식 핫스팟인 쉐 브로니는 따뜻하고 정겨운 목재 인테리어가 매력적인 레스토랑이다. 계다가 해발고도 2,100m 에 있어 레스토랑의 테라스에서는 깜짝 놀랄만한 풍경이 펼쳐진다. 스위스 전통 음식은 물론 지중해 메뉴도 훌륭하며 조식도 훌륭하다.”

쉐 브로니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바로 ‘찾아가는 방법’이다. 여름이면 케이블카나 하이킹으로 레스토랑에 갈 수 있지만, 겨울에는 쉐 브로니에 갈 수 있는 단 한가지 방법은 ‘스키’밖에 없다. 수백가 파라다이스에서 고운 파우더 스노우를 지치며 핀덴른 방향으로 내려오다 보면 쉐 브로니가 나온다. 레스토랑은 이미 스키어들과 보더들로 가득해 예약을 하거나 조금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지만, 스키를 타다가 맛보는 쉐 브로니의 건강한 음식과 와인 한 잔은 스위스 스키의 또 다른 묘미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

날씨가 좋은 여름에는 쉐 브로니에 가기 전, 수백가 파라다이스(Sunnega Paradise)에서 하이킹을 즐겨도 좋다. 수백가 파라다이스에서 곤돌라로 연결되는 블라우헤르드는 체르마트 5 개 호숫길이 시작되는 하이킹 코스다. 다섯 개의 산상 호수와 그 위로 거울처럼 반사되는 마테호른의 풍경을



즐기다가 수백가 파라다이스에서 하이킹을 마친 후, 핀델른 행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면 셰 브로니 레스토랑이 나온다.

www.chezvrony.ch

2. 녹인 치즈와 말린 고기, 와인의 궁합

체르마트에서는 청정 알프스 허브를 먹고 자란 소에게 받은 우유로 만든 치즈와 무공해 공기에서 말린 고기, 알프스 언덕배기에서 햇살을 받고 자란 포도로 만든 와인을 한꺼번에 맛볼 수 있다. 특히 이 세 가지의 궁합은 미식계에서 내로라하는 그 누구도 트집을 잡을 수 없을 정도다.

1) 라클렛(Raclette)

특히 산악지방에서 즐겨 먹는 요리로, 직경 40cm 정도의 커다란 라클렛 치즈를 반으로 잘라, 단면을 장작불에 녹인 후, 녹은 부분을 긁어내어 삶은 감자에 얹어 먹는 요리다. 피클이나 양파를 함께 먹는 것이 일반적이다. 스위스를 비롯한 북부 알프스에 위치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라클레뜨 치즈는 살균(파스퇴르) 처리를 한 원유로 만들어지지만, 발레(Valais) 지역에서 생산되는 라클레뜨 발레잔느(Raclette valaisanne)는 고유하게 무 살균 원유를 사용하고 있다.

2) 비앙드 세세(Viande séchée)

발레주에서 먹는 요리로, 양념을 한 쇠고기 덩어리를 공기 중에서 건조한 것으로, 얇게 썰어서 먹는다. 와인 안주에 제격이다.

3) 발레 산 와인

스위스 와인의 2/5 이상이 발레주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발레 지방의 와인은 약 50 가지의 포도로 만들어지며 이 중 뽀띠 아르벵(Petite Arvine), 아미뉴(Amigne), 위만뉴 블랑(Humagne blanc), 위만뉴 루즈(Humagne rouge), 꼬르날랭(Cornalin)과 같은 품종은 무척 오래된 것으로, 희귀한 품종이다. 발레 산 와인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볼어로는 샤슬라(Chasselas)라고 하는 펜단트(Fendant) 품종이다.

3. 알프스 소맥, 친환경 알프스 한가운데서 바비큐 파티

스위스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알프스, 그리고 친환경 관광 정책들이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가진 천혜의 자연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행하고 있는 스위스 사람들이다. 자연 보호가 최대의 이슈인 스위스에서, 그것도 알프스 한가운데서 '취사'를 꿈꾸는 것은 그래서 무척이나 터무니없어 보인다. 하지만, 스위스는 바로 여기에서 반전을 매력을 드러낸다. 알프스 한복판에서 취사, 그것도 바비큐가 가능하다는 사실. 로컬들만 아는, 관광객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다. 체르마트 알프스 한복판에서 바비큐를 즐길 수 있는 스폿이 두 곳 있다.

전나무 숲속에 둘러싸여 있는 도센 빙하 정원(Dossen Glacier Garden)과

슈바이그마텐(Schweigsmatten)에 위치한 바비큐장은 커플들의 피크닉 장소로 인기다. 물론 가족 단위로도 많이 찾는다. 조용한 알프스 숲 한가운데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도란도란 정겨운 바비큐를 즐기기 좋다. 숲속으로는 보드라운 산들바람이 끊임없이 불어대고, 멀리서는 시냇물이 졸졸 흘러내리는 소리가 정겹다. 바비큐장에는 마른 장작과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 장작을 보관해두는 창고가 마련되어 있다. 테이블과 벤치, 바비큐 그릴이 준비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그늘도 있어 여름에도 서늘하다. 불을 피우기 위한 성냥과 신문지 등을 준비해 오면 된다. 물론 바비큐 음식 재료는 각자 준비해 가야 한다. 체르마트 기차역 건너편에 대형 슈퍼마켓이 있고,



반호프슈트라세(Bahnhofstrasse)에는 소시지를 파는 정육점도 있으므로 취향에 맞는 소시지와 맥주를 사 들고 바비큐장으로 올라가면 된다. 바비큐 시설은 연중 항상 개방되어 있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마테호른 글래시어 파라다이스를 찾아가려면 체르마트에 있는 케이블카를 타고 푸리(Furi)라는 산악 지역을 지나게 되는데,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 바비큐 시설이 되어 있다. 푸리에서 도센 빙하 정원까지는 하이킹으로 약 20 분(1.6km), 푸리에서 슈바이그마텐(Schweigmatten)까지는 하이킹으로 약 10 분(588m)가 소요된다. 케이블카를 굳이 타지 않고 체르마트부터 걸어서 바비큐장까지 갈 수도 있다. 체르마트 기차역에서 출발할 경우, 도센 빙하 정원까지는 약 1 시간 10 분(5.3km), 슈바이그마텐까지는 약 55 분(4.3km)가 소요된다.

6. 체르마트를 떠날 때는, 빙하특급(Glacier Express) 엑셀런스 클래스(Excellence Class)

마테호른이 우뚝 솟아 있는 알프스 산골 마을 체르마트부터 패셔너블한 리조트 생모리츠까지 이어준다. 튀지스(Thuisis)부터 이어지는 알불라(Albula)와 베르니나(Bernina) 철도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을 만큼 감동적인 알프스 깊숙한 파노라마를 선사한다. 베르니나 고개(Bernina Pass)의 가장 높은 지점을 통과하며 짜릿한 풍경을 안겨 주는 것도 잊지 않는다. 이렇게 7 개의 계곡과 291 개의 다리, 91 개의 터널을 지나며 약 7 시간 30 분에 걸쳐 달리는데, 구름 속을 뚫고 올라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알프스의 비밀스런 풍경과 위험한 알프스 절벽을 지나는 광경도 보여준다. 특히 아찔한 돌다리, 란트바셔 비아дук트(Landwasser Viaduct)가 여정 중 하이라이트로 꼽히며, 해발고도 2,000m 이상인 오버알프 고개(Operalp Pass), 라인슬루흐트 계곡(Rheinschlucht Gorge), 푸르카 터널(Furka Tunnel)을 지나며 기막힌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여정 중 가장 높은 지점은 오버발트 고개(Operalp Pass)로, 2,033m 에 달한다.

로컬들이나 유럽 여행자들은 체르마트에서 생모리츠 전 구간을 탑승해 특별한 하루를 보내기 즐긴다. 특히, 일등석보다 우위에 있는 엑셀런스 클래스 탑승 자체를 데이트 코스로 생각하는 노부부도 볼 수 있다. 더욱 안락한 좌석에 앉아 최고의 뷰를 즐기며 미식 체험을 할 수 있다. 엑셀런스 클래스의 특별한 점은 기차에 오르자마자 느낄 수 있다. 컨시에지 코너가 마련된 데스크에서 환영 인사를 받으며, 체크인과 수하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샴페인을 곁들인 언어 수플레를 맛보며 파노라마 창문 밖으로 펼쳐지는 기막힌 풍경들에 대한 흥미진진한 에피소드와 정보를 들을 수 있다. 노련한 승무원들이 여정 내내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부단히 애쓴다.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태블릿으로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을 즐길 수도 있고, 여정이 지나가는 루트와 지방, 그곳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여정 중, 승무원들은 와인을 곁들인 향토식 5 코스 런치를 서빙한다. 피츠 베르니나(Piz Bernina)나 마테호른을 바라보며 맛보는 아유즈 부쉬와 샴페인은 그 맛이 배가 된다. 환영주나 식전주로, 글래시어 바(Glacier Bar)를 이용해볼 것을 권한다. 최고의 뷰를 조망할 수 있다. 여정 후반에는 디저트를 곁들인 애프터는 티가 서빙된다. 엑셀런스 클래스에서 즐기는 여정은 단순히 감각적인 만찬일 뿐만 아니라, 스위스 최고의 특별한 체험이 되어줄 것이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 소지 시,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생모리츠까지 전 구간을 이용하지 않고 부분 구간을 선택해서 탑승할 수도 있다.

자료제공: 스위스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말